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 자료 소개 및 학술적 활용도에 관하여

조규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20세기 국제 관계 및 정치사 연구에 있어 핵심인 자료집이다. 1971년 백악관 산하의 역사학자 사무처(Office of the Historian)에 의해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해서 편집하여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연관된 검색을 하거나 직접 원하는 연도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리하였다. 이 자료집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들과 나라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펼친 외교 정책 또는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특정 연도에 이해하고 있던 국제 관계 등을 지령서, 각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중에서 동아시아와 연관된 해양 및 영토분쟁과 관련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핵심적인 자료들의 소개와 함께 학술적 활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이 다루는 역사적 사건들의 범위와 주제 등을 알아보고 이 특정 자료집이 갖는 시리즈 내에서의 지위를 가늠할 것이다. 둘째, 해양과 영토 문제 연구에 있어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이 다루는 내용, 특히 독도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그리고 제1차 대만 해협 사태

에 관해 어떻게 본 자료집을 활용할 것인가를 논할 것이다. 이 자료집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체결된 가장 중요한 조약들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과 중국이 제1차 대만 사태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서들 사이에 오간 서신 그리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논의를 담은 문서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 특징을 잘 활용한 연구 주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확실히 대응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FRUS* 시리즈가 미국 정부가 이미 공개한 자료들만을 모았기 때문에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자료들, 특히 Maryland 주 College Park의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미국립 문서 관리국)에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과 병행해서 보면 좋은 Record Group 59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하고 연관된 책들도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다른 1차 자료들과 어떻게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해양 및 영토 문제의 연구에서 어떻게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활용할 수 있으며, *FRUS*가 대표적인 미국 정부의 문서들만을 공개한 자료집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Record Group 59로 보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후 일본과 미군정에 대한 관계와 중국 내전과 대만 해협 상관계와 파생된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 그리고 제1차 대만 해협 사태 자체의 역사를 다룬 영문 학술 도서들을 소개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다 더 심층적인 이해와 창의적인 연구 주제들을 생각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FRUS*에 들어 있는 자료의 종류와 개수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관련 문서들과 중국 관련 문서들이 다루는 중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 외에 다루지 못한 자료들은 *FRUS*와 이 논문에서 언급한 미국과 영

국의 다른 1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들과 함께 N.A.R.A.의 인터넷 주소들을 참고문헌에 명시해놓았으므로 이 사이트들에 접속해서 더 폭넓고 깊은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 *FRUS*와 *FRUS 1952: China and Japan*의 관계 그리고 *FRUS*와 함께 보면 좋은 1차 자료들에 관하여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정되어 간행될 미국 외교 문서 자료집이다. 국가 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매우 유효하게 발동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 문헌 관리 실태를 고려할 때 *FRUS*는 미국의 외교 문서들을 거의 총망라한 자료집이라 할 수 있고,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다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미국 외교의 역사를 순수 1차 사료로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861년부터 *FRUS*가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며, 1870년부터 1947년까지는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미국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문서 모음집)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1947년에서 1969년까지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미국의 외교 관계: 외교 문서집), 그리고 1970년부터 현재까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미국 외교 관계)로 편찬되고 있다. 특히 *FRUS 1952-1954* 시리즈부터는 비밀문서들이 대거 공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현재는 1980년대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 그리고 Reagan 행정부의 문서들을 분류 및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FRUS*는 1971년부터 워싱턴 D. C.에서 미국 국무부 직속 역사 연구 기관인 Office of the Historian(역사학자 사무처)이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현재 총 450여 권이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열람 가능한 문서들이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으로부터 나올 때마다 편집 및 증편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문서의 종류는 각 권의 내용 및 목적에 따라 다양

한데, 크게 각서와 지령서,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CIA 보고서 발췌문, 정치인들의 서신 원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까지 공개된 정부 문서들의 원본들을 매우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 문서들은 중요도에 따라 secret, classified, 그리고 declassified라는 세 가지 등급에 따라 나뉘는데, 한 등급에서 다음 등급으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사실상 *FRUS*에 담긴 자료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 N.A.R.A.에 가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연구 방법이다. *FRUS*는 제목대로 미국의 관점에서 본 외교 관계의 해석에 주력한 문서들을 중시하며, 주로 국방부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문서들을 정리해놓았다. 간혹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낸 각서나 메모 등이 실려 있긴 하지만, 주로 국방부가 백악관의 입장을 다른 부서들에 전달하는 각서들이 많으며, 외교관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국방부에게 보낸 편지, 메모, 그리고 보고서 등도 원본 그대로 실려 있다. 종합적으로, *FRUS*는 현대 국제관계 그리고 20세기 미국-동아시아 관계의 역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모든 역사 자료들이 그렇듯, 시간의 흐름 앞에 온전하며 완벽한 자료란 존재하지 않는다. *FRUS*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검증을 받은 자료들을 모아냈다는 점에서 실려 있는 자료들의 신뢰도나 정확성은 보장될 수 있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론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료들과의 대조 및 비교가 필수이며, 한 *FRUS* 자료집과 다른 *FRUS* 자료집 사이에 상반되는 주장들을 펼치는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각서나 지령서는 간혹 백악관의 지시 또는 지령서를 발령하는 기관 자체의 해석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외교관들이 바라본 현실과 다른 경우도 많아서 문서가 써지게 된 배경을 문서가 묘사하는 현상의 배경을 잘 구분해서 사료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료집은 미국 정부가 내놓는 신중 자료, 기밀 상태가 해지된 문서들을 토대로 매년 증편 또는 편집이 되기 때문에 한 권에 없는 자료가 다른 권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한 권에서 다

른 권에 수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classified와 declassified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있고, 이 결정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FRUS는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료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사료의 내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FRUS는 책으로 처음에 간행되어 오다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미국 정부에서 역사학자 사무처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제까지 FRUS 책에 실렸던 자료들의 원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 FRUS는 인터넷으로 볼 때 개별 문서들의 제목들을 모두 링크로 만들어서 원하는 문서의 제목을 눌러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책을 일일이 다 넘겨볼 시간이 없을 때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창에 원하는 주제 또는 사건에 따라 핵심 단어나 문장을 쓰면 관련 문서들이 검색되도록 설정해놓았다. 원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그 문서와 연관된 검색어를 가진 문서 또는 주제 면에서 유사한 문서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 원하는 문서들을 따로 모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FRUS는 미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기능해서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나 더 이상 기밀 문서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각 문서의 내용에 담긴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보조하는 다른 1차 사료나 2차 자료와 함께 보아야 빠르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문제는 FRUS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2차 자료들이 FRUS가 책으로 보존되어 있는 학교들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연구의 질과 연구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2차 자료는 많이 찾을 수 있어도, FRUS는 정부 기록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명문대학교, 예를 들면 University of Chicago 또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같은 특정 대학들에게만 FRUS 시리즈 전체를 책으로 소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컴퓨터로 열람하는 것이 편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책을 통해 사료를 보는 것이 더 편한 사람에게는 간혹 필요한 자료
 집이 자신의 대학교에 없는 경우 직접 다른 대학교들의 도서관을 찾아가거
 나 Inter-library Loan(ILL)이라는 대학 간 도서 대출 시스템을 통해 몇 주
 에서 몇 개월 뒤에 받아보는 방법 외에는 *FRUS*의 전 권을 볼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FRUS*를 통해 무엇을 연구자 하는
 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잡
 히지 않았다면, *FRUS*의 자료집들을 통해 궁금증 및 의문을 갖는 주제가 무
 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주제를 미리 설정했다면, 해당 주제
 가 미국이 바라본 관점, 또는 그 주제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FRUS*는 자료집을 연도순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하는데, 미국
 의 외교관계를 분석한 문서들 중에서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의 문서들이 가
 장 많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들이나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들을 발표한 문서들이 주로 실려 있다. 하지만 역사학에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어느 특정 시기의 ‘대
 표적’인 문서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역
 사학자에게 상당한 신뢰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E. H. Carr가 『역사란 무
 엇인가』에서도 주장했듯이, 역사는 필연적으로 역사학자의 주관적인 입장
 을 투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관성을 심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
 로 ‘대표성’이 있는 문서들을 중심으로 역사학자가 사실을 판단하는 행위가
 가장 객관성을 잘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성’ 또한 하나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사료를 정리한 사람이나 기관
 의 주관적인 입장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FRUS*는 언제나 미국 외교의 흐
 림을 파악하는 데 중심이 되는 문서들을 통해 흐름을 알아내겠다는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FRUS*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문
 서들을 실은 점은 미국 외교의 전체적인 전략과 태도를 일반적으로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외국 역사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
 도 이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춰지는 미국의 이

미지에 미국 정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이것은 좋게 해석하면 *FRUS*에 포함될 문서들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선별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자료들만 공개해서 CIA나 국방부의 은밀한 작전들, 그리고 외국의 정치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들이 담긴 문서들은 *FRUS*에 공개되지 않아서 역사적 사실들의 복잡한 관계나 어두운 면들은 *FRUS*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FRUS*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흐름을 파악한 이후에는 반드시 N.A.R.A.로 가서 Record Group에 담겨 있는 기밀문서들과 declassified 또는 classified 문서들을 통해 사실관계와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때로는 왜 특정 문서들은 공개하고 다른 문서들은 비공개 처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의 무게와 중요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과 일본이 당면했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분석한 미 국방부 보고서, 메모, 각서, 지령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FRUS* 자료집과 동일하게 연도순으로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고, 자료집의 제목에 충실하게 중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먼저 실려 있고, 이어서 일본과 관련된 문서들이 실려 있다. 자료집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일본과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문서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2부에서는 중국과 대만 사태에 대한 백악관의 견해,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외교권이 바라본 미국의 이상적인 대응들에 대해 교환된 서신 및 관련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FRUS*가 보통 한 권당 한 해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중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영토 문제, 특히 다오위다오와 대만 사태, 그리고 일본의 전후 처리를 집중적으로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한 미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서한, 지령서, 각서 그리고 메모 등이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일본부터 살펴보면, 1952년은 일본에게 두 가지

의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으로, 일본이 미국이 구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반공 진영을 주도하는 국가로 잘 변해왔는가를 미국이 평가하는 해였다. 둘째, 1952년은 일본에서 맥아더 장군 지휘 아래에서 미군정이 거의 전권을 잡아서 일본을 ‘전범국’에서 ‘평화로운 민주 국가’로 잘 변모했는지를 평가하는 해이기도 하였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일본의 1952년을 바라본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본이 얼마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항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연구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권원을 주장하거나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CAPIN No. 677 그리고 SCAPIN No. 1033도 함께 참고하면 일본의 기본 논조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CAPIN(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No. 677에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일본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SCAPIN No. 1033에서는 일본이 독도에서 12마일 반경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도 제주도와 울릉도 및 한국의 수많은 다른 섬들에 대해서도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FRUS*에 담겨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관한 서한이나 지령을 읽을 때 함께 참고하면 더 유익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에 능통한 학자라면 일본 사료들이 일본의 입장을 나타낼 때 사용한 표현들과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들을 표현한 방식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매우 좋은 연구 전략이다.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이 특히 빛을 발하는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냉전 시대 초기 관계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어떤 변수들을 고려하였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과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한 영국의 입장도 함께 고려한다면 사태의 국제적인 영향력, 그리고 냉전사에서 대

만 해협 사태가 갖는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문서들을 얻는다는 건 중국 공산당원이 아닌 이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만 사태를 바라본 미국의 대표적 우방인 영국의 문서들과 우리나라와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연구서들을 참고하면 *FRUS*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Woodrow Wilson Center가 운영하는 International Cold War History Projec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매우 좋다. 영국에서는 *Churchill Papers*와 *Harold Wilson Papers*를 참고하여 영국이 바라본 대만 사태와 미국의 시각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진행하면 대만 사태가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만 사태를 대만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작업도 진행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들은 물론 대만의 입장까지 모두 고려하는 다각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대만 해협 사태를 국제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만 국립 문헌 보관소(Taiwan National Archives and Administration)는 대만 해협 사태에 관한 많은 대만 정부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FRUS*를 통해 사태의 전체적인 개요와 흐름을 파악했다면 방문해서 직접 정부 문서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결론적으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2차 세계 대전 직후 중국과 일본이 직면했던 영토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외교 노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감수하고 편찬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들을 좋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의도가 시리즈의 주관성을 질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미국의 여러 국가 기관들의 대표적인 문서들과 기록물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냉전의 흐름이나 미국이 그 흐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들과 입장들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SCAPIN No. 677과 No. 1033을 함께 참고하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과 해양 영토 문제 연구에서의 활용 방안 및 잠정적 연구 방향

앞서 *FRUS*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의 중요도,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1차 자료들을 소개했다면,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어떻게 해양 및 영토 문제들에 접목시킨 연구를 할 수 있는지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 보며 역사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중국과 일본의 해양 및 영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특히 중국과 1차 대만 해협 사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FRUS 1952-1954: China and Japan*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문서의 이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다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 문서의 조항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목적은 미국이 냉전에 대비해 일본을 전범국에서 동맹국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목적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했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나 다오위다오 영유권에는 해당 조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역사학자들은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통해 미국이 당시에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미국이 생각한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적 질서와 그 질서 속에서 일본이 맡아야 할 역할을 냉전의 구도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영토 문제들(독도, 다오위다오, 쿠릴 열도)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는데,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 담긴 외무성 웹사이트를 보면 일본은 SCAPIN No. 677과 No. 1033에 공통적으로 독도에 대한 연합국 사령부의 최종 결정이 공표 안 됐으므로 여전히 독도가 분쟁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평화 조약은 철저히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 특히 소련과 중국이 일본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미-일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개별적인 영토 문제까지 해결해줄 의무는 없었다.

독도와 다오위다오의 반환 문제도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가 원론적으로 파생시킨 문제이므로 일본이 애초에 책임져야 할 문제를 조약에 의존해 풀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미국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서는 Rusk Note라 불리는 서한인데, 이 문서는 미국이 일본의 허위 정보만을 토대로 결론지은 내용이 대부분이라 국제법적 효력이 매우 낮다. 따라서 *FRUS 1952-1954*를 통해 미국이 철저하게 일본을 동아시아의 핵심 반공 기지로 삼으려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사실상 미-일 방위협정의 성격이 영토 문제 해결의 단서로서의 성격보다 더 짙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 문제를 20세기만의 문제로 부각시켜서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영유 의사 표현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FRUS*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중심으로 문서들을 정리한 것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독도에 대한 지도, 고문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당위성을 알려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역사 사료의 중요성은 문서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 알려주거나 못 알려주는 사실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완해야 할 요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인식해서 연구가 몇 걸음 진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 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논한 것을 생각해보면,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미국이 생각한 일본의 냉전 속에서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반공 진영 구축에 비해 왜 영토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미국에게 인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반공적이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샌프란시스코로 초대할 계획조차 없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국제 협약의 유일한 '동의어'처럼 추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이 인정한 일본'과 미국에게 조약 체결 당시 '초대 받지 못한 국가들'인 한국 그리고 중국과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현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RUS 1952-1954*의 일본과 관련된 문서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항 및 규정들의 이행에 관련된 서류들이며, 미 국방부와 다른 부서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문헌들도 조약에서 사용되는 표현 및 조약의 목표와 의도에 대해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일본과 관련된 문서들은 총 385개이고, 미국이 실행한 일본 내에서의 정책, 일본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바라본 주일 미군정의 정책, 그리고 한국-일본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서(SCAPIN)나 정책들에 관련된 메모 그리고 관료들이 주고받은 서신들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대만 관계, 일본의 재무장과 류큐와 보닌 섬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물리적 지원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및 미국의 일본 내 투자현황 등도 다루어져 있다. 이 주제들 중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봐야 할 주제들은 SCAPIN, 류큐와 보닌 섬,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미국의 투자 현황 등을 꼽을 수 있겠다.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한국 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하나의 중국' 논쟁 중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중국 내전을

종결시키고자 한 대만 해협 사태는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문서들의 상당수가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 해협 사태는 단순히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반공의 초승달’을 만들고 싶었던 Dean Acheson 국무장관의 구상을 고려하면, 대만 해협 사태는 미국이 태평양을 반공지대로 만들고자 했던 시도에 처음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중국의 거센 도전이었다. 또한 1954년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빨리 봉쇄해서 대만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을 것이며, 군함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의 도발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대만 해협 사태를 중요하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대만 해협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서는 총 461개이며, *FRUS*의 국방부 문서들과 백악관 관료들이 주고받은 서신들은 대부분 중국이 직접 대만 사태를 해결하고자 대만을 직접 침략할 때 미국의 대응은 무엇이 적합한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인 주제들은 미국의 제7함대 파견 여부와 그 정책적 당위성, 대만과 국민당 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제재 검토, 중국의 섬에 대한 방위와 미국의 대응책, 대만과 중국의 휴전 가능성과 미국의 역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및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그리고 중국에 납치되어 있는 미국 공군 소속 비행사들에 대한 구출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제1차 대만 해협 사태의 전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 평가하는 외교 문서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간혹 영국과 인도의 입장들이 담긴 외교 서한 사본들도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자료집의 제목과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주로 미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중국 주제 미국 대사의 보고서 등이 핵심 자료들이므로, 영국의 입장이나 대만의 입장들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은 학자들은 직접 *Churchill Papers*나 *Harold Wilson Papers*를 보거나 대만 국립 문서 보관소를 방문해서 대만 정부 문서들을 열람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일본과 관련된 자료들과 비교하면 중국과 대만에 대해 상대적으로 문서의 내용에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편인데, 그 이유는 대만 해협 사태가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일어난 국제 문제였으므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미군정이 직접 통치하는 일본에 비해 적었다. 일본과 관련된 문서들은 *FRUS 1945*에서 *FRUS 1951*까지의 연도순대로 정리된 문서 모음집에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 자료집들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한다.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또한 상대적으로 대만에 대한 문서들이 중국과 관련된 문서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그것은 1950년대의 냉전 초기의 구도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미국이 1954-1955년에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Formosa 결의안에 의거해 직접 군사적 지원을 해서 대만을 지키려는 모습을 중국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1952년에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대만과 중국의 소위 '집안싸움'에 미국이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 좋을 것은 별로 없었고, 한국 전쟁을 막 끝낸 시점인데다가 중국의 군사력을 경험해본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대만 해협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상태를 피하고자 하였다.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은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집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만 해협 사태는 중국 대륙 통일이 목표였던 중국 내전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의 자료들과 함께 *FRUS 1945, Vol. VI: China, the Far East*와 *FRUS 1949, Vol. IX: China, the Far East*의 중국 관련 문서들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4. *FRUS 1952-1954: China and Japan*과 Record Group 59

*FRUS*는 미국 정부의 외교 방침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들을 연도순 그리고 나라와 지역별로 정리한 문서 자료집임을 감안하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난이도에 따라 더 심층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할 밑바탕을 마련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밑바탕’만으로는 역사 논문이나 책을 적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한 분석이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N.A.R.A.의 기밀 문서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강조했다듯이, *FRUS*에 편찬된 문서들이나 앞으로 편찬될 문서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도와 이 시리즈에 담긴 미국의 외교적인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FRUS*는 역사학자나 사회과학자의 개인적인 주장들과 상관없이 이미 상당히 긍정적인 미국 외교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으며, *FRUS*에 내재되어 있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FRUS*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담지 않은 문서들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A.R.A.의 자료들은 Record Group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Record Group의 번호마다 취급하는 분야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Record Group이 필요한지 미리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각 Record Group 안에는 여러 folder들이 있는데 이 folder를 Decimal File(십진법 분류 파일)이라 하며, 각 Decimal File별로 문서들이 주제에 맞추어 들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N.A.R.A.의 자료들은 *FRUS*처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Record Group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지역별로 다루는 내용과 Decimal File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해놓았기 때문에 Record Group에서 무엇을 찾을지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N.A.R.A.를 가기 전에 충분한 2차 자료들을 통한 학술적 주장의 당위성, 그리고 *FRUS* 및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자료 및 자료집들을 충분히 연구를 통해 숙지한 후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N.A.R.A.는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보는 관계로, 때로는 어느 Decimal File 속에 관련된 문서들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Decimal File에서 원하는 문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은 주로 미국이 펼친 냉

전 시대의 외교, 그리고 미국이 바라본 동아시아의 정세 등이 주된 관심 분야라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Record Group들은 242번(북한 관련 문서), 554번(미군정기 문서: 해방 후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양의 미군정 문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룰 59번(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외교부 문서 및 자료: 각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다)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59번은 다루는 내용 및 지역의 범위에 있어 가장 방대하고 자세하여 냉전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다. 특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을 담아서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에서 다른 문서들이 언급하는 문서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Record Group 59의 Decimal File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관련된 File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서 언급한 *FRUS* 문서들과 어떤 방식으로 병행해서 연구하면 좋을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단,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각 Decimal File들의 중요 사안들을 토대로 과일의 의의와 문서들이 다루는 정책들과 외교 문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냉전 초기의 일본과 중국을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File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은 Maryland 주의 College Park에 있으며, Record Group은 개별 파일들을 모아놓은 큰 폴더를 일컫는 말로 각 파일은 십진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이런 파일들을 Decimal File이라 부른다. 각 Decimal File 안에는 여러 가지 비밀문서, 정부 문헌, 보고서, 각서, 지령서,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 있고, 어떤 파일들은 보관 상태에 따라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열람하는 문서들이 작성된 날짜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고 찾고자 하는 문서들의 주제들을 대강 조사한 다음 연구를 시작한다면 어느 Decimal File들을 봐야 하는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N.A.R.A.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RG 59에 들어 있는 Decimal File 목록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 RG 59는 1910-1949, 1950-1963, 그리고 1963-1973

의 세 가지 시기의 문서들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의 학자들이 독도와 영토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는 일제 강점기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체결한 1951년 전후가 될 것이므로 이 두 시기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Decimal File들은 다음과 같다:

711.94-Japanese-United States Relations(미-일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담은 문서 모음).

894.00-Japanese Political Affairs(일본의 정치 및 외교와 관련된 문서 모음).

894.20 그리고 894.30-Japanese Military Affairs(일본의 군사 관련 정책,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 모음).

894.50-Japanese Economic Affairs(일본의 경제와 관련된 문서 모음).

독도와 영토 문제들은 정치 문제들이므로 711.94, 894.00, 894.20, 그리고 894.30 파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한 711.94가 나머지 세 개의 파일들의 주제들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문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분류한 대로만 문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언제나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침착함과 인내심이 상당히 요구되며, 문서들이 설명하는 사건들의 인과 관계에 유의해서 꼭 필요한 문서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알아보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경우, 비록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초대 받지 못해 조약의 내용 및 조인 절차에 대해 평가할 기회가 없었지만, 여전히 일본의 영토에 관한 주장들은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의 외교 정책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세 나라와 관련된 Decimal File 들도 함께 연구에 활용한다면 더 깊이 있고, 국제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관련된 파일들을 보면 일본의 패전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한 문헌, 해방 후 한국에 대한 상황 분석, 미군정의 정책, 그리고 일본의 영토 반환 문제에 대한 문서들도 볼 수 있으므로 독도 문제 연구에 필수라 할 수 있다. 문서들을 분류한 시기들은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미국이 해방 전의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많이 의존하였으므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다른 Decimal File들에 비해 적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연구를 하거나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낫다.

한국과 관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711.95: Korean-United States Relations(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 모음).

895.00: Korean Political Affairs(한국의 외교 관계, 특히 일제 강점기하의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이외에도 해방 후 일본의 영토 반환 문제, 한국 전쟁,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문제 등의 주제들에 대한 문서 모음).

895.20 그리고 895.30: Korean Military Affairs(한국의 군사 관련 문제들에 대한 문서 모음).

895.50: Korean Economic Affairs(한국의 경제 및 무역 상황에 대한 문서 모음).

이 자료들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파일에 걸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일제 강점기하에 있던 한국에 대한 정보는 1945년 이후의 정보보다 양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둘째, Decimal File들은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는 관계로 파일마다 주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문서들이 간혹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문서를 찾은 파일의 번호와 제목을 주석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 문서의 여러 사본들이 파일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한국 관련된 파일들 중에서는 711.95 Decimal File을 기준으로 다른 파일들의 문서들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중국의 1952-1954년도를 주름잡은 대표적인 국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대만 해협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FRUS*의 주제들에 맞춰 원하는 문서들을 토대로 미국이 제7함대를 직접 파견할 목적을 파악했다면 Record Group 59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자료들과 더 넓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냉전 시대 전략을 공부할 수 있다. 1910년에서 1949년까지의 중국과 관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711.93: Chinese-United States Relations(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문서 모음).

893.00: Chinese Political Affairs(중국의 정치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들에 대한 문서 모음).

893.20 그리고 893.30: Chinese Military Affairs(중국의 군사 관련 문서 모음).

893.50: Chinese Economic Affairs(중국 경제 및 국제 무역에 관련된 문서 모음).

대만 해협 사태는 1945년에서 1949년까지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특히 711.93, 893.00, 그리고 893.20과 893.30 파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1950년 이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중화 인민공화국과 대만으로 분단됨에 따라 파일들의 분류법도 중화 인민공화국과 관련된 파일들과 대만에 관련되는 파일들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950년에서 1959년까지의 중국과 대만에 각각 해당하는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611.93: Chinese-United States Relations(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들을 아우르는 문서 모음집).

793.00: Chinese Political Affairs(중국의 외교 문제, 대만과의 관계, 중-일 관계, 중-한 관계 등을 다루는 문서 모음집).

793.5: Chinese Military Affairs(중국의 군사 관련 문서들을 다룬 모음집, 한국 전쟁과 대만 해협 사태에 관련된 문서들이 주축을 이루는 문서 모음집).

893.00: Chinese Economic Affairs(1950년에서 1959년까지 중국의 경제 상황 및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문서들을 다룬 모음집).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 대만과 관련된 파일들은 다음과 같다:

611.94A: Taiwanese-American Relations(대만과 미국의 외교, 무역, 군사 관계 등을 다룬 문서 모음집).

794A.00: Taiwanese Political Affairs(대만의 국내의 정치 및 외교 문제들을 다룬 문서 모음집; 대만 해협 사태와 관련된 문서들이 많음).

794A.5: Taiwanese Military Affairs(대만의 군사 관련 문서 모음집; 794A.00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문서들이 많음).

894A.00: Taiwanese Economic Affairs(대만의 경제 및 무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문서 모음).

중국과 대만의 '분단'에 따라 문서의 분류법이 더 복잡해지고 문서들의 양이 늘어났으므로 중국과 관련된 문서들이 대만과 관련이 있고, 대만과 관련된 문서들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50년 이전에 분류된 문서들과 1950년 이후에 분류된 문서들을 함께 분석해야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지며, *FRUS*는 미국의 외교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집이므로 *FRUS*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RG 59를 열람한다면 신선한 주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서들의 내용적인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중국 관련 파일은 611.93, 대만은 611.94(A)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주일 미군정, 미-일 동맹, 그리고 대만 해협 사태와 중국과 미국의 냉전 시대의 관계를 다룬 영문 학술 자료와 도서

*FRUS*의 학술적 가치는 그 자료집이 담고 있는 문서들의 질과 양을 고려하면 매우 높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다양해서 분명 많은 좋은 연구 주제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1차 자료는 역사학적 해석을 정확하기 위한 준비물이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서 연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자 스스로가 찾아내는 고되지만 흥미로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FRUS*가 미국 국가 기관들의 핵심 문서들을 제일 먼저 사회에 공개하는 거의 유일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과 외국의 학자들은 *FRUS*를 열람한다. 하지만 *FRUS*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집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실제로 출판된 책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일 미군정 그리고 미-일 동맹에 관해 쓴 영문 학술 도서들과 대만 해협 사태와 중국과 미국의 냉전 시대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로 본 냉전의 국제 역사를 다룬 도서들을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소개하는 도서들을 참고하여 연구 과제에 적합한 2차 자료들을 찾는다면 더 확고한 주장과 그 주장의 당위성을 입증할 연구 실태와 1차 자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일본 내 미군정 그리고 미-일 동맹의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특히 미군정하의 일본에 대해 쓴 영문 연구 서적들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서술학적 논문으로는 Robert J. McMahon, “The Cold War in Asia: Toward a New Synthesis?”, John W. Dower, “Recent Japan in Historical Revisionism: Occupied Japan as History and Occupation History as Politics”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들은 미국과 일본의 전후 관계를 분석한 영문 및 일본어로 된 서적들에 대한 소개를 주목적으로 하는 글들로서, 연구 실태를 파악하고 특정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학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McMahon이 냉전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힘썼다면, Dower는 미군정하에 있는 일본과 일본의 미군정기에 얽혀 있는 정치적 이권 및 사상적 논쟁들을 일본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본의 미군정기를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종합적인 학술 실태를 기록한 몇 안 되는 귀중한 예 세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일본과 미국의 전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이해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데, 유용한 책들로는 Anthony Beevor, *The Second World War*, John W. Dower, *War without Mercy*,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그리고 Walter LaFeber, *The Clash: U.S.-Japanese Relations Throughout History* 등이 있다. Anthony Beevor는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로, 스페인 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등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많은 책을 썼으며 *The Second World War*는 2차 세계대전을 세계적인 사건으로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킨 말 그대로 세계대전의 세계사적 시점에서 쓴 통사이다. 매우 긴 책으로 방대한 자료와 구체적인

인 정보들이 많은 책으로 태평양 전쟁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John Dower는 미국에서 태평양 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역사학자로 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전략과 전쟁의 진행 과정 그리고 전후 일본의 정치적 상황 등을 다루는 책과 논문들을 많이 썼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Dower의 두 책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을 어떻게 적으로서 인식했고, 적에 대한 선전물을 어떻게 심리전에 활용했으며, 또 전쟁 이후의 일본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서술하였으므로 국내 미-일 관계 전문가나 동아시아 역사 및 국제 관계 전문가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이다. 하지만 *Embracing Defeat*의 경우 미국의 정책적인 고민들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기 때문에 Michael Schaller의 책을 참고한다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Schaller는 특히 미국이 왜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정책의 핵심 국가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많은 분석을 했는데, 그가 사용한 지령서, 메모, 및 다양한 1차 자료들은 여전히 미-일 관계 연구에 필수인 자료들이 많으므로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LaFeber의 책은 미-일 관계를 1854년 미국의 의해 강제 개항된 일본에서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일본을 다루고 있는데 미-일 관계에 대해 쓴 책 중 특히 지난 3, 40년간 대표적인 영문 학술 도서들을 참고 문헌에 많이 기록해서 서술학적 흐름을 파악하고 미-일 관계의 역사를 장기적 시점에서 잘 집대성한 책이라 가치가 높다. 이 책들을 통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이나 방향을 잡는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흐름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대만 해협 사태와 중국 내전과의 상관관계

대만 해협과 중국-미국의 냉전 시대의 관계를 다룬 영문 책들은 크게 중국-미국 관계를 다룬 책들과 대만 해협 문제를 다룬 책들로 나뉘는 편이며, 전통적으로 중국-미국 관계를 다룬 책들에서는 대만 해협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루어져 있지는 않아서 대만 해협을 독립된 현상으로 분석하는 책들은 최근에야 조금 나오는 편이다. 먼저 대만 해협의 직접적인 근원이 된 사

건인 중국 내전에 대한 좋은 안내서로는 Odd Arne Westad, *Decisive Encounters*, 그리고 장제스 평전인 Jay Taylor, *The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the Struggle for Modern China*가 있다. *Decisive Encounters*는 중국 내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책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진 영문 및 중국 학술 도서들을 정리해놓은 점이 강점이다. 이 책은 특히 중국 내전이 얼마나 난잡하고 폭력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중국,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들의 1차 사료들을 활용한 분석이 돋보인다. Jay Taylor의 평전은 장제스가 꿈꾼 중국이 단순히 공산주의가 없는 나라가 아닌 군벌을 타도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 그리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을 다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묘사하여 장제스를 긍정적으로 보려 한 시도가 돋보이고, 미국이 중국보다 영국을 더 우방으로 생각한 점과 미국이 중국에서도 유럽에서 수행했던 지도자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점 등을 고려하며 왜 장제스가 마오쩌둥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 내전을 수행했는지 등을 설명하여 장제스의 실패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 책들은 최근에 중국 내전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Frank Dikötter의 *The Tragedy of Liberation*은 중국 내전을 사회사로 풀어쓴 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의 시대의 마오쩌둥의 정책들을 중국 공산당 기밀문서들을 분석하여 그 시대가 결코 평화롭거나 ‘해방’의 세월이 아닌 폭력과 가난과 혼란이 공존했던 매우 어렵고 불행한 시기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49년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전에서 승리를 거머쥔 해가 아니라 1945년부터 시작된 고통의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고, 실제로 이 혼란은 대만 해협 사태, 대약진 운동 등을 거치며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Hans Van de Ven의 *China at War*는 중국 내전의 기원을 1937년으로 설정해서 2차 세계대전과 연결시킨 점이 인상적이며 전쟁 중에 일어난 체제 변화,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이념 채택 등을 자세히 다루어 대만 해협 사태의 원인으로서의 중국 내전의 정치적 성격을 장기적 시점에서 관찰

하고 Dikötter와 달리 중국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Dikötter의 책은 주로 중국 내전의 피해에 집중해서 내전의 정치적 기능이나 목적 등에 대한 분석이 얇은 편이므로, 중국의 공산화를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데 보완하는 방향으로 Van de Ven의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Diana Lary는 Dikötter와 Van de Ven과는 달리 중국 내전이 중국, 대만, 그리고 홍콩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치중한 작품으로, 앞서 언급한 두 작품들에 비해 내전 자체에 대한 분석은 덜 강조된 책이다. 하지만, Dikötter와 Van de Ven이 여전히 전쟁의 경과를 중심으로 전쟁의 공포성을 부각해서 여전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책들을 쓴 반면, Lary는 전쟁이 어떻게 중국 사회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중국 내전을 정치 현상이 아닌 사회에 닥친 시련으로 해석해서 전쟁의 피해와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 시민들의 노력과 피폐해진 삶 등을 조명해서 '사회사로 본 중국 내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Dikötter와 Van de Ven 그리고 Lary의 책들은 대만 해협 사태와 중국 내전의 인과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전이 중국과 대만의 분단으로 끝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만 해협 사태나 중국 내전 이후의 큰 사건들이 모두 내전 초기에 일어난 강도, 약탈, 살인, 방화, 폭력 등의 문제들을 없애지 못한 채로 이어져 온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 해협을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아닌 중국 내전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 명확한 이유들을 제시하는 작품들이라는 측면에서 Dikötter와 Van de Ven의 책들은 *FRUS*와 RG 59의 활용 방법은 물론 대만 해협 사건과 현대 중국 및 대만의 역사에 갖는 의미들을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대만 해협은 연구 주제로서 아직 관심도가 중국-미국의 관계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관련된 영문 서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적 구도 및 쟁점이 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Nancy Bernkopf Tucker, *Strait Talk: United States-Taiwan Relations and the Crisis with China*, Bruce A. Elleman, *Taiwan Straits:*

Crisis in Asia and the Role of the U.S. Navy 그리고 Yang Huei Pang, *Strait Rituals: China, Taiwan, the United States in the Taiwan Strait Crises, 1954-1958* 등이 있다. Tucker는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서 불신이 지속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를 서로 빨리 쌓지 않는다면 중국의 부상을 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제1차 대만 해협 사태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Henry Kissinger가 미국 외교 속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시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이 책은 ‘대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대만의 학술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과 Kissinger가 설령 대만을 실제로 경시했다 하더라도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확실히 대만보다 더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에 미국이 집중한 것이 왜 실수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대만이 섬이라는 지리적인 사실도 염두에 두면서 비평적으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보다 더 종합적인 평가 및 비평을 알고 싶다면 Elleman의 책과 Pang의 책을 추천한다. 영문으로 출판된 대만 해협 사태에 관한 대만의 역사학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영어권에서 아직 소개가 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lleman과 Pang의 책들은 대만의 시각에서 바라본 대만 해협 사태를 냉철하고 상세하게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다. Elleman은 네 차례에 걸친 대만 해협 사태들의 역사를 분석하며 대만 해협 사태가 장기적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대만의 노력의 일환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히고, 중국 및 대만의 비밀 및 잊혀졌던 1차 사료들을 많이 연구하여 대만 해협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분명히 전달하는 책이다. 흔히 ‘대만 해협’은 1차와 2차 사태에 많은 학자들이 집중하는데, Elleman은 이런 보편적인 현상에 의문점을 던지며,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20세기 후반을 연구하여 ‘대만 사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FRUS*의 자료들의 학술적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Pang은 1960년대 이후 유행했던 ‘중

국과 미국의 상호적인 불신'의 결과물로서 대만 해협 사태가 일어났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수정하는 책을 썼다. 특히 그는 중국, 대만, 미국 모두 서로의 전략과 목표 그리고 계획을 상당히 알고 있었으며, 사태 중에 일어난 협상들에 집중하여 대만 해협 사태가 대만을 둘러싼 대규모 전쟁으로 번지지 않은 것 자체가 매우 큰 성과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 책은 '미시적 역사학'을 표방하여 신호, 소통, 협의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응용한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점이 인상적이고, 단순히 '정치 현상'으로서 대만 해협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대화 또는 교류의 형태로 사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역사학의 '사회과학화'가 어떻게 정치사 분석에 쓰일 수 있는지를 제시하므로 대만 해협 사태에 대한 분석 및 이론적 접근법에 대해 많이 참고할 만한 책이다.

3) 냉전과 미국과 소련의 관계

냉전 시대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소련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결을 세계적인 정책의 대결로 바라본 책으로는 Melvyn P. Leffler, *A Preponderance of Power*가 있고,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인 대결을 미국 대통령들의 결정들과 이념들로 분석한 Melvyn P. Leffler, *For the Soul of Mankind*가 있다. 전자의 책이 세계를 무대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긴장감을 그려내는 데 집중하고 트루먼 선언을 하게 된 배경 및 선언 이후의 국제 정세의 변화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후자의 책은 Eisenhower, Kennedy, Reagan 등의 미국 대통령들의 소련에 대한 접근 방식과 Malenkov, Khrushchev, 그리고 Brezhnev 등의 소련 지도자들의 미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A Preponderance of Power*는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므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상황들과 비교적인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For the Soul of Mankind*는 사상사적인 성향이 더 짙은 책이므로 정통적인 정치사 관련 책인 *A Preponderance of Power*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지역별로 바라본 냉전을 인물로 풀어

보는 냉전사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책으로서 읽는다면 전후 일본과 대만 해협 사태의 상대적 위치들을 미-소 전략 구도 속에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Odd Arne Westad의 *The Global Cold War*는 냉전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재해석한 책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서들이 냉전을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라고 압축시켜 분석한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책이다. Westad는 Leffler와 달리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던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 간접적 역할보다도 그들이 개입했던 사건들이 각각 저마다 복잡한 지역적 또는 국가적인 맥락을 이미 상당히 반영한 상태였으며, 미국과 소련의 개입이 과정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최종 결과들은 모두 사건들의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Westad는 특히 '냉전'을 사상적 투쟁이라 보지 않고 제국주의에 맞선 반제국주의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결합했을 때 생기는 여러 모습들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책의 방법론적 독창성을 강조한다. 강대국들의 입김은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 원인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아무리 세계적인 힘을 지녔더라도 세계의 모든 사태들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나 기원들을 모두 알고 개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FRU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 대만 및 중국의 국내 문서들을 균형 있게 봐야 할 당위성을 심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으며, 냉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책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2-1954, Vol. XIV: China and Japan(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FRU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FRUS 1946, Vol. VIII: The Far East(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FRUS 1948, Vol. V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art 2(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FRUS 1950, Vol. VI: East Asia and the Pacific(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FRUS 1951, Vol. VI: East Asia and the Pacific, Part 1(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IN No. 677: Memorandum on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IN No. 1033: Memorandum on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Record Group 59 Decimal Files.

International Cold War History Project(<https://www.wilsoncenter.org/program/cold-war-international-history-project>).

Churchill Papers(<https://www.chu.cam.ac.uk/archives/collections/churchill-papers>).

Harold Wilson Papers(<https://archives.bodleian.ox.ac.uk/repositories/2/resources/3291>).

2차 자료

Beevor, Anthony, 2012, *The Second World War*, Phoenix.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New York: Pantheon Books.

Dikötter, Frank, 2013, *The Tragedy of Liberation: A History of the Chinese Revolution, 1945-1957*, Bloomsbury.

Dower, John W., 1975, "Recent Japan in Historical Revisionism: Occupied Japan as History and Occupation History as Politic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4, No. 2(February), pp. 485~504.

_____, 1987,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_____, 1999,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Elleman, Bruce A., 2014, *Taiwan Straits: Crisis in Asia and the Role of the U.S. Navy*, Rowman & Littlefield.

LaFeber, Walter, 1997, *The Clash: Japanese-U.S. Relations Throughout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Lary, Diana, 2015, *China's Civil War: A Social History, 1945-1949*,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ffler, Melvyn P., 1993,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8, *For the Soul of Mankind: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New York: Hill and Wang.

McMahon, Robert J., 1988, "The Cold War in Asia: Toward a New Synthesis?" *Diplomatic History*, Vol. 12, No. 3(Summer), pp. 307~327.

Pang, Yang Huei, 2019, *Strait Rituals: China, Taiwan, the United States in the Taiwan Strait Crises, 1954-1958*, Hong Kong University Press.

Schaller, Michael, 1987,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 Jay, 2011, *The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the Struggle for Modern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Tucker, Nancy Bernkopf, 2011, *Strait Talk: United States-Taiwan Relations*

and the Crisis with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Van de Ven, Hans, 2018, *China at War: Triumph and Tragedy in the Emergence of the New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Westad, Odd Arne, 2003, *Decisive Encounters: The Chinese Civil War, 1946-1950*,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6, *The Global Co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